

13대 전주시의회 원 구성 본격 돌입

의장 선거서 최명철·최주만 의원 '맞대결'

부의장은 김동현·김윤철 의원 '출사표'

상임위장 후보 단독 출마... 25일 당내 선거

제13대 전주시의회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에 본격 돌입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들은 7월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며 향후 4년간 의회를 이끌 지도부 구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시 의장 선거에는 최명철 의원

(전주 라)과 최주만 의원(전주 다)이 출마해 맞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두 후보 모두 각각의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인맥 관리 등이 탁월한 관례로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의원내대표는 이미 재선의 김성규 의원(전주 바)이 선출된 상태다.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운영위원장에

온혜정 의원(전주 차), 행정위원장에 최명권 의원(전주 카),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정명 의원(전주 다), 문화경제위원장에 이성국 의원(전주 사), 도시건설위원장에 최서연 의원(전주 아)이 각각 단독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 구성의 최대 변수는 정당 간 의석 분포다.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 3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명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등 비민주당 계열 의원도 10명에 달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논의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직책을 모두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책임정치를 위해

다수당이 주요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민주당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1석 정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의회 내 발언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5일 당내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7월 1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7월 3일 상임위원장을 최종 선출하고 제13대 전주시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정치에서는 이번 원 구성이 향후 전주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의회 내 협치 수준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 첨단산업 육성 전략 논의

도지사직 인수위 메가시티 특위, 캠퍼스 종합기술원 찾아

현장간담회 열고 피지컬AI·미래 제조혁신 역량 점검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5각3특 호남제주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미래 제조혁신 현장을 찾아 전북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초광역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허강무 위원장이 이끄는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캠퍼스종합기술원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피지컬AI와 스마트 제조 기반의 미래 제조혁신 역량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강무 위원장을 비롯해 박진희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호남·제주권 산업 협력 모델 구축 방안, 초광역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현황과 캠퍼스종합기술원의 주요 사업을 청취한 뒤 복합소재부품기술센터와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등을 둘러보고 AI 기반 제조혁신 추진 현황과 기업 지원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캠퍼스종합기술원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 지원, 인재 양성 기능을 연계한 제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율 제조와 로봇, 드론모빌리티, 우주·항공·방산, 탄소복합재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피지컬AI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제조 창업 플랫폼인 J-



Valley 구축을 통해 전북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상홍 캠퍼스종합기술원 원장은 "5각3특과 호남·제주 메가시티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피지컬AI와 스마트 제조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초광역 산업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허강무 위원장은 "호남 제주 메가시티는 단순한 지역 연계를 넘어 미래산업을 공동 육성하는 초광역 성장전략"이라며 "현장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전북이 미래 제조혁신과 피지컬AI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민선 9기 전북도정이 추진하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비전과 초광역 경제권 구축 전략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평가되며, 향후 호남·제주권 제조혁신 네트워크 강화와 미래산업 공동 성장 모델 구축에도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제9대 군산시의회 대장정 마무리

시민 삶 증진 위한 의정활동 전개... 총 1011건 안건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지난 18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 7월 합차기 출범한 제9대 의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으며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5분 발언에서 환경보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원칙으로 삼아 지역의 일상 문제에 더 촘촘히 다가가려 노력했다"며 "시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들이 결실을 볼 때 정치가 가진 힘과 보람을 느꼈으며 지역에 민연한 부조리에는 서슴없이 쓴소리를 받고 불합리한 규제 앞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앞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 자리를 떠나지만,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은 여러 한계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의정의 본질은 제 삶의 현장에서 계속될 것이다"며 "지난 4년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해 함께 동행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우민 의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군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았지만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의회를 믿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9대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제9대 군산시의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끝마쳤으며, 바깥을 이어받은 제10대 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여정의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 않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입법 활동이 크게 돋보였다. 제9대 군산시의회는 조례 제·개정 및 예산·결산 승인, 동의·승인안, 규칙 제·개정 등 총 1,0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완성한 의안처리율 선 보였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의 경우 281건에 이르며, 입법 활동에 있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민생 조례를 촘촘히 마련하는 데 노력해 왔다.

김우민 의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군산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았지만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의회를 믿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제9대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제9대 군산시의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끝마쳤으며, 바깥을 이어받은 제10대 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여정의 첫발을 내딛을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4년간의 공식 의정활동 마쳐

제9대 남원시의회가 지난 19일 폐원식을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폐원식을 개최하며 지난 4년간의 공식 의정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출범한 제9대 남원시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정례회 8회 임시회 22회를 개최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쳤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 237건을 포함해 총 889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시



정질문 12건, 5분 자유발언 160건, 건의·결의안 48건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김영태 의장은 폐원식에서 "지난 4년간 현장을 누빈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치열하게 고민해 온 결실은 남원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민과 함께 달린 4년' ... 문승우 도의회 의장의 소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책임 기간 가장 의미 있는 일"

"아쉬운 점도 있으나
도민을 위해 최선을
제13대 의회 의원들도
전북 발전 위해 뛰어주길"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문승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장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오는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마치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4년간의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180만 도민의 성원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의장은 지난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다"며 "의원 활동기간 돌아켜보면 새만금 SOC 예산 78.2% 삭감 사태를 비롯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도의회는 단식과 삭발, 전주에서 국회까지 이어진 릴레이 달리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북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쉬운 점도 있지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13대 도의회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며 "12대 의원들이 그랬듯 새롭게 출발하는 의원들도 전북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책임 기간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꼽았다.

그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와 합

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비록 임기 내 결실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13대 의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는 광역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했지만, 지금은 도지사 시정과 동일하게 사퇴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며 "전국 시·도의장단이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체육인 출신인 문 의장은 전북 체육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깊은 애정도 드러냈다.

현재 전북 체육박물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제가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할 수는 없었지만 기반은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체육회관 인근 체육시설 조성과 연계해 박물관 건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후배 의원들과 체육계가 힘을 모아 잘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도적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국회에 가서 전북과 군산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보고 싶었지만 부족

한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재료가 당선된 김의겸 국회의원이 전북과 군산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기 종료를 앞둔 심경을 묻자 문 의장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마음이 착잡한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저보다 훌륭한 후배 의원들이 많다"며 "이제는 믿고 맡기고 털털 털고 떠나려고 한다"고 웃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자 "하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사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익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철 재난 대응과 202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금융 중심시 조성 등 주요 현안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사진)은 지난 19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2~26일 주요 도정 추진 일정과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먼저 민선 8기 마무리 일정과 관련해 퇴임사와 도정 백서 발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정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정 기록물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22일 김관영 도지사의 남원·장수 지역 현장 행정에 이어, 23일 임실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취약 시설과 현장을 점검하며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6 행사와 연계해 도내 바이오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전북 미래 발전 전략인 5각 3특과 연

'여름철 재난대응·올림픽 유치'

도, 22~26일 주요일정 발표

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막거리 복지 확대 정책도 소개한다. 임산부와 초등학교 과잉 지원사업, 대학생 전원숙업 운영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23일에는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여 익산역과 원광대를 연결하는 4.8km 자율주행 버스 시승식과 현장 점검이 진행된다.

24일에는 김관영 도지사의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가 개최된다. 이어 6월 소풍의 날 행사도 열려 주요 도정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같은 날 농촌 유학 가족 체육형 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해 농촌 유학 활성화 정책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다 전북도는 농촌 유학 참여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소멸 대응과 교육 활성화를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5일에는 6·25전쟁 76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며, 신종 김연병 발생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 대응훈련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도 본격화된다. 전북도는 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현석과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등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하는 도내 홍보 투어를 진행해 올림픽 유치 분위기를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 실사를 앞두고 금융 특화 도시 조성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마

련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세계소리축제 준비상황도 공개된다.

26일에는 지방재정 고액·상속 체납자 245명에 대한 출구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 일터 아웃 포스트 사업을 통해 청년 노동환경과 지역 정착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IC 제146차 총회 결과와 향후 올림픽 개최 선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도정 주요 홍보사업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공동 추진하는 자연 재난 대응 기술 성과교류회가 눈길을 끈다. 전북도는 도심 침수 대응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전북도립미술관이 이천희 컬렉션 특별전의 일환으로 파카소 작품 전시를 7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추진하는 바,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